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61호

발행인: 조민제
발행일: 2015년 6월 15일(월요일)
발행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사업주는 징역형 구형! 해고자는 복직!

보수전장 정근원 동지 15일 복직!

보수전장의 정근원 동지가 15일부로 현장에 복귀한다. 그동안 3년의 해고투쟁 끝에 드디어 복직을 하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투쟁해온 정근원 동지와 가족들, 지회 조합원 동지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보수전장 노조파괴의 최대 피해자인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온갖 핑계를 갖다대며 해고를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법원마저도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고, 정근원 동지는 당당히 현장으로 복귀한다.

이만행 전 대표이사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 구형!

그 와중에 진행된 보수전장 노조파괴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있었다. 검찰은 노조파괴 주범인 이만행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물론 아직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노조파괴 혐의의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범죄사실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관리자 3인에게도 8월~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의 범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해고자는 현장을 복직하고 대표이사는 징역형을 구형받은 상황이 재밌다. 그렇게 법과 원칙을 부르짖던 대표이사과 관리자들은 법정에 서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들에게 해고당했던 노동자는 대법원 판결을 듣고 당당히 현장으로 돌아왔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이미 다 밝혀진 것이다.

법원의 양심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법원니 판결은 7월 7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하도록 지회에서는 매일 1인 시위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

이만행 전 대표이사는 법정의 마지막 진술에서도 자신들은 윤리적 경영을 하는 세계적인 그룹이라고 스스로 칭송했다. 법원이 이들에게 진짜 윤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유성기업은 임금삭감도 자유자재

유성기업에서 임금삭감이 벌어졌다.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10여명은 월급의 일부가 깎인 명세서를 받았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표적으로 고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사측이 내세운 이유는 황당하게도 '태업'이다.

유성기업은 UPH(시간당 생산량)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모자라면 임금을 삭감했다. 기준치에 미달하게 생산했으니 태업이라는 것이다. 이 기준치는 노사간에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사측이 마음대로 정한 기준을 놓고 임금을 깎는 것이다.

최근 노조파괴 관련한 재판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유명한 보수전장의 전 대표이사가 검찰 구형에서 10월 징역형을 받았다. 유성기업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이보다 적은 형량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유성기업은 아직도 노조파괴를 멈출줄 모르고 있다. 범죄자들이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일까?

민주노조 사수!

한국타이어 공동선전전

○일시: 6월 15일(월) 13시30분
○장소: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앞

불법파견 정규직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 일시: 6월 17일(수) 14시00분
* 장소: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